

## 신기후체제와 근대성 재고:

켄 부굴Ken Bugul의 『히완 혹은 모랫길Riwan ou le chemin de sable』을 중심으로

이గా야\*

### 【요약】

켄 부굴(1947-)은 세네갈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서 현대 세네갈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여러 작품을 통해 다각도로 재현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히완 혹은 모랫길』은 삼부작 자서전 중 1999년에 발표된 마지막 작품으로서 ‘흑아프리카 문학 대상’을 받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텍스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화자는 세네갈의 문화로 자리 잡은 일부다처제를 소개하며, 그중에서도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일부다처제에 대해 여러 시각으로 보여준다. 화자는 근대화된 서구식 관점에서 일부다처제가 전근대적이며 여성에게 무조건적으로 폭압적인 제도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또한 화자 자신이 경험한 일부일처제 역시 인간이 추구할 완전한 제도는 아님을 지적한다. 화자의 이러한 태도는 근대성을 비판하면서 전근대와 근대 사이에서 나갈 바를 모르는 21세기 인간의 입장에 대해 논한 브뤼노 라투르의 의견과 조우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자는 또한 자신이 체험한 일부다처제를 통해 세네갈의 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제시한다. 결국,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수용을 촉구하는 화자의 목소리는, 라투르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근대도 전근대도 아닌 비-근대를 향할 것을 제안한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켄 부굴, 히완 혹은 모랫길, 브뤼노 라투르, 근대, 전근대, 비-근대, 신기후체제

---

\* 숭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https://doi.org/10.34162/hefins.2022..29.006>

## I. 들어가며

중세 라틴어인 ‘모데르누스modernus’(최근의 시기)를 어원으로 하는 ‘근대적인moderne’이라는 형용사는 14세기에 처음 등장했으나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대성<sup>1)</sup>은 16세기에 이르러서야 모습을 드러냈다<sup>2)</sup>.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할 때, 서양에서 근대성을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중세 시대라는 전근대와 대비되는 ‘인간의 이성’ 또는 ‘합리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대성이 확립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자연, 과거/현재, 주체/객체, 문명/비문명, 서양/동양 등의 이분법이 확립되었다. 본고는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사유를 좇아서 하이브리드한 세계에서 근대성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라투르는 기후 변화나 지구의 생태계 위기, 미세먼지 문제 등의 자연의 변화가 과학이나 정치, 사회, 또는 윤리라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설파함으로써 우리가 밭 딛고 살아가는 세계가 근대적인 구획 구분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하이브리드한 세상임을 밝힌다.

라투르의 시각에서 근대화는 발전이나 진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제3세계를 식민지화하고 착취했으며, 그러한 근대화의 결과로 지구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유럽인들은 식민지배를 했던 지역에서 원주민과 피식민인들을 노예로 삼았을 뿐 아니라 자원을 무분별하게 채굴했으며, 대규모의 산림 벌채<sup>3)</sup>를 단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식민 시대가 이미 막을 내린지 반 세기가 흘러갔지만 여전히 생태계는 신음하고 있으며 20세기 말에 도달한 세계화

1) Bruno Latour (1991), pp. 23-24.

2) 양재혁 (2019), pp. 109-135.

3) 조나단 베이트는 식민화가 산림 벌채를 동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식민주의와 생태계 파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Janathan Bate (2000), p. 87.

mondialisation 추세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라투르는 서구사회에 의해 근대화가 수 세기 동안 이어진 결과 세계화에 이르게 되었지만, 세계화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 제안되어 극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며, 몇몇의 측량 도구와 표준 및 서식에 국한된 유일한 비전으로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도처에 퍼져나간다”<sup>4)</sup>고 비판한다. 세계화를 향해 나아가던 지구와 인간이 맞닥뜨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신기후 체제(Nouveau Régime Climatique)”<sup>5)</sup>라고 명명한 라투르는 이제라도 근대화라는 미명에서 벗어나서 비-근대 시대를 모색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더 많은 수의 인간, 생명체, 문화, 현상 등을 고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네갈의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인 켄 부굴은 1983년부터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sup>6)</sup>했고, 1999년 『히완 혹은 모랫길』을 발표한 후 ‘흑아프리카 문학 대상 Grand Prix littéraire d’Afrique noire’을 수상했다. 세네갈의 20세기 후반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아 전개되는 이 작품은 세네갈 사회가 독립(1960) 이후 어떻게 전반적인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해 묘사하며, 이슬람교 전통 아래에서 여전히 일부다처제가 구현되고 있는 세네갈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순응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양상으로 관습에 저항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화자이자 주인공은 텍스트에서 크게 세 명의 여성 인물들의 삶에 대해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한다: 하마 Rama라는 열여섯 살 된 인물이 어떻게 할아버지 뺄되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스물일곱 번째 아내가 되는지 이야기하며, 나부 삼 Nabu Samb이라는 주인공의 어린 시절 친구가 대도시에서 성공한 나이 많고 이미 여러 번 결혼한 남자에게

4) Bruno Latour (2017), p. 23.

5) Bruno Latour (2017), p. 10.

6) 본고의 분석 대상 텍스트 『히완 혹은 모랫길』은 켄 부굴의 삼부작 자전적 글쓰기(『무성한 바오밥 나무 *Le Baobab Fou*』(1983), 『재와 잉결불 *Cendres et Braises*』(1994)) 중 세 번째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숫처녀로서 많은 지참금을 받고 시집가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화자 자신이 일부다처제로부터 벗어나 근대적인 여성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 유럽으로 건너갔으나 만신창이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마에 이어서 스리뉴 Serigne라 불리는 종교 지도자의 스물여덟 번째 아내가 되어 살아가면서 겪고 생각한 경험을 펼친다. 이처럼 화자이자 주인공은 두 문화를 모두 체험함으로써 그 두 가치체계에 끼인 인물<sup>7)</sup>로서 일부다처제에 대해 여러 에피소드를 제시하면서, 일부다처제를 서구식 관점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본고는 신기후체제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근대성의 개념으로 제시한 라투르의 이론을 방법론으로 삼아, 『히완 혹은 모랫길』을 분석하여 근대화의 희생양이 되고 한편으로는 근대화의 대척점에 위치한 세네갈 사회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을 통해 비-근대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는 화자가 근대성을 지닐 것을 자처하며 일부다처제를 전근대적인 관습으로 치부하는 시선을 살펴보고, 이어서 텍스트 내에서 일부일처제로 대표되는 근대성 역시 작금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자이자 주인공의 삶을 통해 근대와 전근대라는 구분에서 벗어나서, 비-근대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성찰할 것이다.

## II. 근대와 글로벌: 느린 폭력과 환경

주지하다시피 근대화는 식민 지배를 받은 지역에서 문화와 자연의 파괴를 불러왔다. 유럽 제국주의자들은 무지한 피식민인들을 계몽시킨다는 목적으로 쉽 없이 물리적이자 정신적인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는 켄

7) Catalina Sagarra (2006), pp. 215-236.

부굴의 텍스트에서도 여러 번 형상화되고 재현된다. 화자는 세네갈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이룬지 몇십 년이 지난 시점이 배경이 되는 『히완 혹은 모랫길』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풍경의 변화를 은디아렘Ndiarème이라는 도시의 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은디아렘의 기차역은 초록빛이었다. 신선한 빵과 투바의 따뜻한 커피가 네슬레 우유 통에 담겨 나오는 것과 같이, 기차 창문을 통해 상추, 신선한 민트, 양배추, 꽃양배추가 지나쳤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비워지고 비어 있는 공간들이 예전의 푸르름과 재난의 범위를 상기시켰다. 가뭄의 시기들과 정치인들의 상상력 결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가게 했으며 이런 현상의 결과는 최근에 범, 추방, 범죄와 살인에 대한 증오로 대처하는 극적인 상황이었다. [...]

물 저장과 물이 나오는 다른 지점을 찾는 일주들, 즉 주기적인 해결책들이, 매일 조금씩 더 궁핍에 빠져가는 민중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는 과시를 위한 투자 대신에, 예견되고 발견되며 협상될 수 있었다.”<sup>8)</sup>

화자는 스리뉴의 많은 아내들 중 소크나 마메 파예Sokna Mame Faye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녀의 고향인 은디아렘 지역에 대해 설명한다. 화자이자

---

8) “La gare de Ndiarème était verdoyante. A travers les fenêtres du train, passaient salade, menthe fraîche, chou-pommé, chou-fleur ainsi que du pain frais et du café de Touba bien chaud, servi dans des boîtes de lait Nestlé. Mais aujourd’hui, des espaces vidés et vides rappelaient encore la verdure de jadis et l’étendue du désastre. Les années de sécheresse et le manque d’imagination de nos gouvernants avaient contraint des gens à aller chercher la fortune ailleurs et les conséquences de ce phénomène sont les situations dramatique que nous gérons de nos jours avec des lois, des expulsions, de la haine du crime et du meurtre.[...] Des circuits de conservation d’eau, de recherche d’autres points d’eau, des solutions alternatives pouvaient être prévus, trouvés et négociés en lieu et place d’investissements de prestige qui ne donnaient pas à manger à un peuple qui sombrait chaque jour un peu plus dans la misère.”: Ken Bugul (1999), p. 99.

주인공이 스리뉴의 스물여덟 번째 아내가 되기 십 년쯤 전에 스리뉴의 아내가 된 파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있던 덕분에 프랑스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유일한 아내였다. 그래서 스리뉴는, 화자이자 주인공이 아내로 들어오기 전까지, 파예를 지근거리에 두고 처리해야 할 집안 여자들과 관계된 일들과 행정적인 일들을 시키곤 했다. 그런 파예의 고향이 바로 은디아렘인데, 그곳은 무리디즘(mouridisme<sup>9)</sup> 운동이 시작된 19세기 말부터 성스러운 도시 중 하나면서 동시에 채소재배의 도시로도 유명한 곳이었다. 그러나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한 후 1970년대에 이례적인 가뭄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채소재배는 고사하고, 범죄가 난무하는 도시로 변해버렸다고 화자는 증거한다. 사실 이 도시는 무리디즘의 변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찾던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였고, 사람들은 식민 지배를 통해 꽤 근대화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실 물도 없는 곳이 되어서, 물이 있는 지점을 찾아다녀야만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화자는 독립 후에도 자신들의 위엄이나 과시하기를 원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민중들의 배고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이룬 국가들은 대부분 근대화를 외치며 나아가는 위정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자신들의 전통을 전근대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서구식 근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당연히 수많은 화학물질로 구성된 물건들의 남용도 거기에 포함된다. 화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의 혜택을 혹은 유혹을 받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녀[하마]는 여행 가방의 번개 잠금장치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글자 그대로 범람했던 여행 가방들: 의심스러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방들, 상인들은 원산지와 품질에 대해서 그리고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거의 의심하지 않았던 가방들이 수천 개의 우리 시장에서 방출되었다. 잠금장치가 번개자

9) 무리디즘에 대해서는 두 번째 챕터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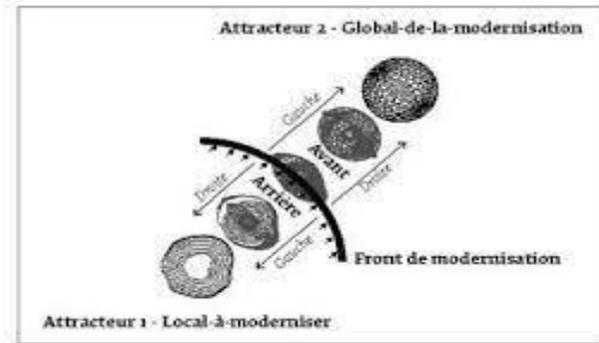
치는 시간만큼만 지속되던 이 가방들은 갖가지 사이즈와 종류로 쏟아져 나왔다.”<sup>10)</sup>

인류세<sup>11)</sup>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할 때까지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혜택을 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공업의 발전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텍스트의 화자는 위의 인용문처럼 어떤 성분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방인지, 원산지와 품질은 어떤지에 대해 걱정스러운 가방이 홍수를 이루던 시대를 그린다. 화학물질의 성분을 확인할 수 없는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화자는 의문을 품고 있다. 여기에서 화자가 사용하는 동사들이 ‘범람하고inonder’, ‘방출되고déverser’, ‘쏟아져 나오는regorger’처럼 지극히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들이다. 무엇보다도 이 동사들이 모두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제공한다는 뜻을 지니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나아가 화자는 그런 여행 가방들의 잠금장치의 조악함을 강조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양산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 자체는 전근대 시대에 사용하던 자연 친화적 제품들에 비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금장치가 금방 고장남으로써 곧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효용성을 잃은 플라스틱으로 된 가방 역시 곧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텍스트에

10) “Elle continuait à tirer sur la fermeture Eclair de son sac de voyage. Ces sacs de voyage dont nos pays étaient littéralement inondés: des sacs en plastique douteux, des sacs que des commerçants peu soucieux de l’origine, de la qualité et des effets nocifs éventuels pour la santé, déversaient par milliers sur nos marchés qui en regorgeaient de toutes sortes, de toutes tailles, avec des fermetures qui ne duraient que le temps d’un éclair.”: Ken Bugul (1999), p. 59.

11)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천에 의해 처음 명명된 인류세는 지구의 전체 역사를 나누는 공식적인 지질 연대표에 새로운 지질시대를 추가해야 한다며 제안된 이름이다. 인류세는 지구 시스템 전반의 기능에 생긴 균열을 설명하는 용어이며, 이 균열로 인해 현재 지구가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라이브 해밀턴, 정서진 역 (2018), p.29.

자주 등장하는 대지의 ‘사막화désertification’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금방 못쓰게 되는 플라스틱 가방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근대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중으로 감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미타브 고시가 “인류세는 근대성의 시간적 질서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이제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가장 먼저 겪는 이들이다.”<sup>12)</sup>라고 주장한 것처럼 『히완 혹은 모랫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근대화의 결과로 벌어지는 인류세의 첫 희생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투르는 그런 근대화 양상을 다음과 같은 도식을 통해 설명한다.



[그림-1] 근대인의 방향성에 대한 규범적 도식 Schéma canonique du repérage des Modernes

출처: Bruno Latour (2017), p.43.

위 그림을 ‘근대인의 방향성에 대한 규범적 도식Schéma canonique du repérage des Modernes’라고 제시하면서 라투르는 ‘근대화되어야 할 로컬 Local-à-moderniser’, 즉 전근대와 ‘근대화된 글로벌 Global-de-la-modernisation’, 즉 근대라는 두 유인자attracteur를 상정한다. 그리고 ‘근대화 전선Front de modernisation’을 두 유인극 사이에 두고, 역사는

12) 아미타브 고시, 김홍욱 역 (2021), p. 87.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견인했다고 설명한다. ‘근대화 전선’은 언제나 진보와 발전, 해방이라는 기치 아래 근대화 쪽으로 전진했다. 또한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화가 오랫동안 피식민국들에서 강요되었으며,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세네갈과 같은 국가에서는 독립을 이룬 1960년 이후에 더욱 박차를 가해 근대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켄 부굴의 화자가 비판하는 정치인들이 바로 이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인 셈이다. 반면, 이 텍스트에는 여전히 근대화와는 무관한 삶을 이어가는 인물들이 있다. 글로벌로 나아가는 근대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구적 시각에서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낙오자로 간주된다.

### Ⅲ. 전근대와 로컬: 전통적 일부다처제

『히완, 혹은 모랫길』에서 세네갈 사회의 일부다처제를 관찰하고 증거하는 화자이자 주인공은 서구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화(modernisé)가 되지 않은 여러 상황을 묘사한다. 서구적인 관점에서 텍스트의 배경이 되는 세네갈과 같이 근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은 국민의 “두려움, 야망 결여, 태생적 게으름”<sup>13)</sup>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 텍스트는 종교와 일상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네갈 사회의 모습을 통해, 전근대적인 양상을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이슬람교 중에서 무리디즘(mouridisme)이라고 하는 세네갈 특유의 이슬람 종파를 중심으로 남자 주인공인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죽기 얼마 전까지 스물아홉 명의 아내를 맞이하고 생활하던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무리디즘은 세네갈이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19세기 후반에 등장했다. 식민 통치 아래에서 애니미즘을 기반으로 한 전통문화가 와해 되면서, 세네갈 민중들이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가 된 사람들이 이슬람교

13) Bruno Latour (2017), p. 26.

지도자들이었다. 그중에, 웨이크 아마두 방바Cheikh Amadou Bamba가 숲속에서 금욕적이면서 청빈한 생활과 기도에 집중하는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 곳 근처의 투바Touba<sup>14)</sup>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이 양성되면서 무리디즘은 세네갈의 이슬람교를 대표하는 종파가 되어서 현재 까지도 세네갈에서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15)</sup>. 『히완 혹은 모랫길』에서도 다음과 같이 무리디즘의 대축일에 대해 소개한다:

“투바의 마갈 대축제! 가장 고귀한 스리뉴[이슬람 지도자를 이르는 명칭]가 식민자들에 의해 추방되었다가 귀환한 날. 토고와 베냉을 지나 카보-베르데의 해안으로부터 마야베 숲까지! 연안 지역의 이 나라 여성들은 그 유명한 망명객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는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 웨이크 아마두 방바 음바케!  
그로 인해 신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sup>16)</sup>

음보스Mbos라는 상업도시에서 또래의 여자아이들처럼 살던 열여섯 살 소녀 하마Rama는 어느날, 아버지가 이슬람교 지도자인 스리뉴에게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그의 스물일곱 번째 아내로 주기로 결정했다<sup>17)</sup>는

14) 수도 다카르로부터 동쪽으로 약 이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네갈의 두 번째 대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투바는 무리디즘의 본원지로서 매년 ‘르 마갈 드 투바[Le Magal de Touba]’라는 무리디즘 종교 축제일-창시자인 아마두 방바가 프랑스 정부에 의해 가봉으로 망명을 떠났다가 돌아온 날을 기념-이면 세네갈 전역에서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Magal\_de\_Touba”, [https://fr.wikipedia.org/wiki/Magal\\_de\\_Touba](https://fr.wikipedia.org/wiki/Magal_de_Touba).

15) Cheikhouna Bèye (2011), pp. 111-117; Ziethen, Antje (2006), pp. 1-13.

16) “Le Grand Magal de Touba!

Le retour du Plus Grand Serigne de l’exil auquel le colon l’avait contraint.  
Des côtes du Cap Vert jusqu’à la forêt de Mayombe, en passant par le Togo, le Bénin!

De ces pays côtiers, dont on racontait que les femmes avaient reçu les bénédictions du célèbre exilé pour lui avoir donné à boire et à manger. [...]

Cheikh Ahmadou Bamba Mbacké!

Que Dieu Soit Satisfait de lui!”: Ken Bugul (1999), p. 53.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다음날 고모와 함께 스리뉴의 집으로 가는데, 자신이 가족과 함께 두 번 그 집에 갔었던 것을 기억해 낸다. 그리고 투바의 마갈 대축제에 순례 여행을 가기 전에 스리뉴를 방문하여 만났던 것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화자는 위 인용문에 제시된 것처럼 무리디즘에 대해 설명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프랑스가 세네갈을 식민 통치하던 시절에 프랑스 정부의 이슬람 탄압에 맞서 반기를 들면서 확산된 무리디즘이 백여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민중들의 삶에 밀착되어 있다. 종교와 일상이 완전히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사회는 곧 서구식 표현을 빌자면 전근대적인 시대를 연상케 한다. 브뤼노 라투르는 이렇게 근대화의 반대편에 위치한 사람들과 장소를 ‘로컬(Local)’<sup>18)</sup>이라고 부르며, 토착민, 패배자, 식민 지배를 받는 자, 하층민, 쫓겨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글로벌화된 20세기 말의 세상 속에서는 낙오한 사람들, 혹은 그런 공간이 총체적으로 로컬에 속한다. 신의 대리자로 여기는 종교 지도자를 향한 과장된 충성심의 표현으로 자신의 딸을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의 아내로 주는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로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주지하듯이, 근대화는 16세기 즈음에 시작되어 20세기까지 이어져 왔다. 16세기는 유럽인들이 고향을 떠나 신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던 때로서 조상 대대로 존재해 왔던 영토의 경계를 떠나기 시작하던 때이다. 즉, 근대화의 시작과 함께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런 이주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로컬에서는 영토가 중요하다. 유럽에서는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에 영토에 기반을 두는 것을 후진성의 표시로 이해했다고 주장하

---

17) 화자는 이 상황을 ‘기증’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야기한다: “Don.

Don d’une personne.

Don de sa fille bien-aimé.

Don total.

Don fatal.

Don sans partage: Ken Bugul (1999), p. 37.

18) Bruno Latour (2017), pp. 38-39.

는 라투르가 근대성과 대치되는 로컬에서 영토를 부각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sup>19)</sup>. 『히완 혹은 모랫길』에서도 땅과 영토, 그리고 그 경계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특히 스리뉴가 살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는 군중들을 묘사할 때 그러한 상황이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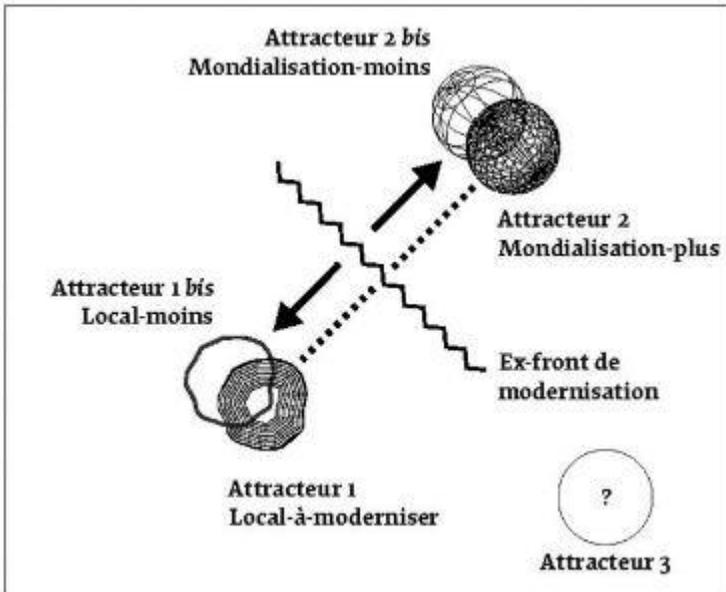
“몇몇은 아마 그 전날부터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벽 없이 깊이나 얇은 함석판으로 덮여 씌어진 일종의 커다란 오두막인 가마gamat에서 잠을 자든지, 또는 아름다운 별이 빛나는 그들의 수레에 메인 소들의 다리 밑 나무 아래에서 잤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날 아침 일찍 도착했다. 스리뉴의 토지 앞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여기저기 수레가 기울어져 있었으며 말들이 곡식 껍질을 까느라 혼들거리며 곡식 주머니에 머리를 처박고 있었다.”<sup>20)</sup>

인용문은 화자이자 주인공이 오랫동안의 유럽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던 스리뉴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 찾아가는 첫 날, 스리뉴의 집 앞 광경을 그리고 있다. 화자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종교적 낙원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으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며칠이 걸려 수레를 타고 오기도 했으며, 도착해서도 스리뉴가 살고 있는 영역 안으로 바로 접근하지 못하고 그 앞에 열키설키 만들어진 오두막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잠을 청하기도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 스리뉴가 소유한 땅 앞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으면, 스리뉴는 자신의 의중에 따라 베란다에서 그 중 몇 사람을 지명해서

19) Bruno Latour (2017), p. 25.

20)“Certains attendaient là depuis la veille peut-être. Ils avaient dû dormir dans le gamat, une sorte de grande case recouverte de feuilles de tôle ou parfois de paille, sans mur, ou sous les arbres, au pied de leurs attelages, à la belle étoile. D'autres étaient arrivés très tôt le jour même. Devant la concession, un peu à l'écart, des charettes étaient inclinées ça et là, et des chevaux plongeaient leurs têtes dans les sacs à grains en faisant frissonner leur pelage.”: Ken Bugul (1999), p. 15.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더욱이 스리뉴에게는 충성스럽게 토지 및 집안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건장한 남자들이 있다. 그들 역시 스리뉴를 위해 헌신할 때, 신의 낙원에 가까이 간다고 믿는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어느 누구도 쉽게 스리뉴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없다. 스리뉴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라투르가 설명한 로컬, 즉 자신의 작은 집과 땅 안에 있으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로컬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sup>21)</sup>. 더욱이 이런 로컬에 대해서 라투르는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한다.



[그림-2] 세번째 유인자의 출현이 근대인들의 관례적인 좌표계를 깨뜨린다  
L'irruption d'un troisième attracteur brise le système de coordonnées habituel des Modernes

출처: Bruno Latour (2017), p.45.

라투르는 이 도표에 ‘세번째 유인자의 출현이 근대인들의 관례적인 좌표계를 깨뜨린다’L'irruption d'un troisième attracteur brise le système de coordonnées

21) Bruno Latour (2017), p. 24.

habituel des Modernes’라는 제목을 붙였다. 근대화를 통해 얻게 된 장점은 “진보, 해방, 부유함, 편안함, 풍요, 그리고 특히 합리성”<sup>22)</sup>이며 그것을 ‘세계화-플러스’이다. 즉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20세기 후반에는 세계화가 강조되었으며, 그 결과로 여러 발전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위 그림의 ‘변형 유인자 2’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화의 가속화로 인해 ‘세계화-마이너스’ 현상 역시 존재한다. 세계화가 전파되면서 점차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이 급증했으며, 연대 의식도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화-마이너스’를 목도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근대화를 향해서만 전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라투르의 의견이다. 이로써 근대화의 반대편에 있던 ‘유인자 1’ 역시 변형 유인자가 생성되는데 그것을 ‘로컬-마이너스’라고 부른다. 그것은 “국가나 종족의 경계 내에서 전통, 보호, 정체성, 그리고 확실성을 약속”<sup>23)</sup>한다. 근대화가 가속화됨으로써 생성된 세계화는 국가나 종족의 경계를 무너뜨렸으나, 이제는 그것들이 다시 강조되는 시기에 이른 셈이다. 근대화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던 ‘근대화 전선’은 더 이상 동일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이전- 근대화 전선’이 되며, ‘세계화-마이너스’와 ‘로컬-마이너스’는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대신, 간격이 벌어진 채 놓여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히완, 혹은 모랫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계화를 향한 비행을 시작했으나 오히려 정치 및 경제, 그리고 환경적 불평등 앞에 놓이는 현실을 마주하는 ‘세계화-마이너스’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며, 식민제국주의의 수탈과 강압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방도로 확산된 이슬람교는 오히려 근대화가 이루어진 후에 남은 잔해물처럼 부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도표에서 빈칸으로 남아있는 ‘유인자 3’, 즉 세계화(근대화)와 로컬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유인자의 등장을 살펴보자.

---

22) Bruno Latour (2017), p. 31.

23) Bruno Latour (2017), p. 44.

#### IV. 비-근대와 지구: 비-근대로서의 일부다처제

라투르가 주장하듯이 이제 어느 한 인간이 세계화(근대화)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또는 로컬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근대화)와 로컬이라는 양쪽 모두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갈 온전한 방향이 아님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인간은 근대화를 거부하지도 수용하지도 못하는 어딘가에 존재하기에 이른다. 『히완 혹은 모랫길』의 화자이자 주인공의 삶의 궤적이 바로 이런 양상을 보여준다. 그녀는 근대화된 서구 세계로 떠났다가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sup>24)</sup>:

“나는 남편도 자녀도 데려오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내가 돌아온 것은 지쳐서였다.  
나는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찾아 방랑했고, 여기저기를 방랑하다가 지쳤다. 이 마을의 남자들, 이 마을의 아이들, 이 마을의 연장자들은 결코 나의 긴 탐색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sup>25)</sup>

화자이자 주인공은 이처럼 자신의 긴 방랑의 끝에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24) 이 텍스트에서는 화자이자 주인공이 어떤 과거를 지냈는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히완, 혹은 모랫길』이 켄 부굴의 삼부작 자전적 글쓰기 중 세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서, 다음의 논고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이가야 (2019), pp. 163-186.

25) “Je n’avais ramené ni mari, ni enfant.

Rien.

Je n’avais rien rapporté.

J’étais revenue parce que j’étais épuisée. Epuisée d’avoir erré partout, erré à la recherche de quelque chose que je ne pouvais pas leur expliquer. Même les hommes de ce village, les enfants de ce villages, les anciens de ce village ne pourraient jamais comprendre ma longue quête.”: Ken Bugul (1999), p. 162.

가져오거나 보여 줄 것 없이 고향 마을로 돌아왔음을 고백한다. 근대화와 세계화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세계인 서구사회를 방랑한 그녀는 돈도, 보석도, 마을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렇게 할만한 몸치장을 하지도 않은 채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해방된 여성, 즉 근대적인 여성”<sup>26)</sup>이라고 불리는 삶을 살기 위해 유럽으로 떠났다. 자신의 고향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일부다처제의 횡포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이런 생각은 켄 부굴의 그것과도 일치한다. 작가가 한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일부다처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 제도에 대해 반대했었고, 그래서 백인과의 결혼<sup>27)</sup>을 꿈꾸었었노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의 방랑 생활을 통해서 주인공이 발견한 것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여성이 아니라 오히려 세네갈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여전히 남성의 소유물이 되는 양상만을 경험한 후 도망치듯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는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채, 그녀는 여성 해방과 관련된 책을 가지고 스리뉴를 만나러 간다. 스리뉴와의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그녀가 가지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인지 묻는 스리뉴에게 여성도 이제 교육을 받고 사회 활동을 해야 함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여성을 향한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sup>28)</sup>. 첫 만남 이후 스리뉴는 주인공에게 다음 날 아침에 또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을 제안하고, 그렇게 주인공은 자신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세계에 대해 스리뉴에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 가진다. 그러던 어느 날, 스리뉴는 사람을 보내어 그녀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는 받아들인다. 여성 해방을 외치던 주인공이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스물여덟 번째 아내가 된 것이다.

그러나 화자가 일부다처제를 찬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sup>29)</sup>. 다만 자신의

26) Ken Bugul (1999), p. 111.

27) Carine Bourget et Irène Assiba d'Almeida (2003), p. 355.

28) Ken Bugul (1999), pp. 15-19.

29) 화자는 일부다처제 속에서 아내들 간의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

경우를 이야기함으로써, 일부다처제라는 제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전근대적인 것이며,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폭압적인 제도는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주인공과 스리뉴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다는 점이다. 한 남자에게 소속된 삼십여 명의 아내 중 한 명이었지만, 그녀는 다른 아내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게 생활했다. 주지하듯이 그들의 첫 만남부터 스리뉴는 주인공의 의견을 들어주고, 오히려 더 대화하고 싶어했으며 매일 만나서 서로 대화를 통해 관계가 조금씩 깊어졌다. 화자는 그의 현명함과 지적인 모습, 그리고 부드러움을 대하며 자신이 점점 스리뉴를 좋아하게 되었다<sup>30)</sup>고 고백한다. 더욱이 다른 아내들과는 달리 스리뉴가 직접 주인공을 선택해서 아내가 되어 주기를 요청했다. 스리뉴는 그 많은 아내가 있었지만, 모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생긴 아내들이다. 첫 결혼부터 네 번째까지는 집안을 통해서 정해진 아내를 맞이해야 했으며, 이후에는 사람들이 종교적 낙원에 다가가기 위해서, 또 스리뉴에게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 딸을 보냈던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주인공은 다른 아내들과 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리뉴를 만나기 시작한 날부터 계속 모랫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스리뉴에게 다시 오기를 반복하는 생활을 했다. 스리뉴의 아내가 된 후에도 자연스럽게 그 생활이 이어짐으로써 그녀는 다른 아내들의 직접적인 질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대학 교육까지 받았던 터라 그 누구보다도 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었다. 그래서 화자는 텍스트를 통해 직접적으로 여러 번 자신의 위치는 특권적이었다고 밝히기도 한다. 특권적이라 할지라도 근대화된 서구사회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일부다처제를 직접 경험한

---

적한다. 화자 자신도 본인 이후로 스리뉴의 아내가 된 어린 여자아이에게 질투심을 느꼈음을 고백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사사르xaxar’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푸당 거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사르’는 새로운 아내가 들어올 때 마다 행해지던 의식으로서, 질투와 다툼을 몰아내기 위해 행해진다. 그러나 ‘사사르’를 통해 오히려 신분을 괴롭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여러 가지 폐해도 존재한다: Ken Bugul (1999), pp. 116-118, 202-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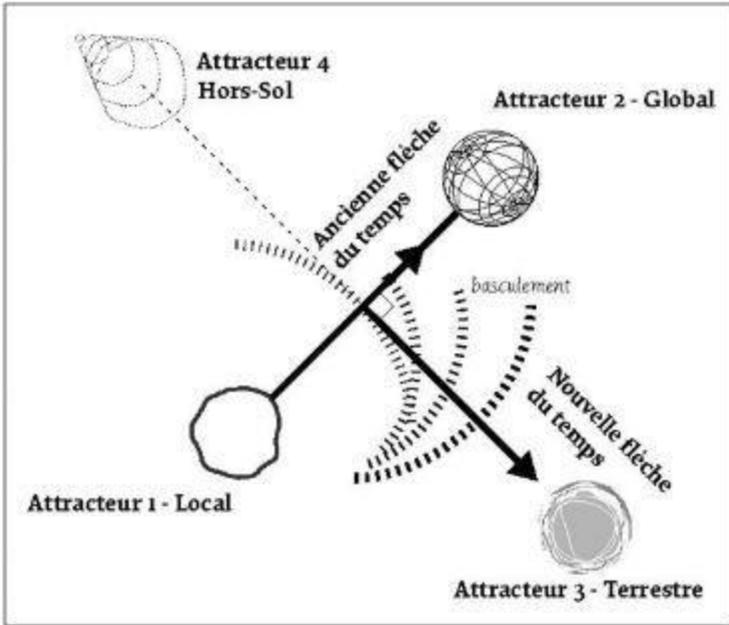
30) Ken Bugul (1999), p. 154

주인공이 바라보는 세네갈 전통 사회와 서구사회는 이전과 달라졌다. 화자이자 주인공은 일부일처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나[주인공]의 종교 교육과 이후의 근대 교육은 나로 하여금 그 역시 나에게만 완전히 속하게 될 유일한 한 남자에게 속하는 것을 준비시켰다. 사람들이 여자로서 내가 되기를 원했던 관계는 독점적인 소유에 근거했다. 관계와 감정에 있어서 자본주의적이고 몰락하는 개념.”<sup>31)</sup>

그녀는 근대식 교육을 받을수록 세네갈 전통 사회의 일부다처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어 조국을 떠났으나, 꿈꾸던 것과는 다른 서구식 삶에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스리뉴의 한 아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일부일처제가 오히려 개인의 삶을 옹만다는 것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화자이자 주인공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관계만으로 구성되는 일부일처제가 서로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려는 인간의 이기심을 극대화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독점’이라는 개념이 경제적으로 접근되었을 때,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세계화가 얼마나 몰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설파하기에 이른다. 이는 라투르가 글로벌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화의 기치 아래, 얼마나 극소수의 이익과 자본이 독점하는 세상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비판한 것과 동일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화자이자 주인공은 전근대와 근대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비-근대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는 라투르처럼, 스스로 비-근대의 길로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투르가 주장하는 비-근대는 다음의 도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1) “Mon éducation religieuse et plus tard mon éducation moderne m’avaient préparée à appartenir à un seul homme qui serait lui aussi à moi toute seule. Pour la femme qu’on avait voulu faire de moi, la relation était basée sur la possession exclusive. Une conception capitaliste, décadente, de la relation et du sentiment.”: Ken Bugul (1999), p. 184.



[그림-3] 정치 현장의 방향 전환 Une réorientation du site de la politique  
출처: Bruno Latour (2017), p.56.

‘대지terrestre’라는 ‘유인자 3’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유인자가 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구에서의 생활을 요구한다. 시간의 화살은 이제 ‘근대화 전선’이 이동하는 전진과 후퇴의 양상을 보이는 긴 직선이 아니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개의 시간 극을 향한다. ‘대지’라는 유인자의 행동에 의해서다. 라투르에게 있어서 ‘대지’는 지구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지구의 임계영역<sup>32)</sup>을 뜻하기도 한다. ‘대지’는 더 이상 인간 행동의 배경이나

32) 지구과학계에서 처음 등장한 임계영역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경험하는 지구는 사실상 놀랍게도 얇은 생물막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 위 그리고 발 아래로 불과 몇 킬로미터의 두께에 지나지 않고, 그 안에서만 관측될 수 있는 막이다. 임계영역의 특이성은 그 이질성에 있다. ‘임계’라는 용어는 점점, 막, 또는 불평형상태와 동의어로 쓰일 뿐 아니라 연약하고 위협받는다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임계영역의 이질성으로 인해 이러한 생물막의 작동 양식, 강건성, 복잡성

무대 뒤편에 있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근대화를 이루어나가던 시기에는 지구 위에서 생활하고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인간의 행동에 반응하고 대항하며, 오히려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인간은 이러한 저항에 맞서서 다시 새로운 세계인 ‘대지’를 탐험해야 한다. 그러나 근대인이 신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입성하여 토착민들의 문화와 삶을 파괴하면서 탐험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세계<sup>33)</sup>는 “미개척지 terra incognita”도, “무주공산 res nullius”도 아니다<sup>34)</sup>. 그곳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일구며 살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이주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켄 부굴의 화자이자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강력한 문화적 지표]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인종의 혼합에 있어서 인종적 분류는 여전히 있었다.

마다가스카르를 일주해보라. 아프리카-중국인, 아프리카-유럽인, 아프리카-멜라네시아인으로 혼합되어 있으며, 아프리카-멜라네시아인은 아프리카-인도인과 혼합되어 있는데, 각자는 폭력적인 무시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했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절망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남아야 할 것이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적인 어리석음의 유전자가 완전히 파괴 될 때까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sup>35)</sup>

---

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한다: 브뤼노 라투르 (2017), 박범순 옮김 (2021), pp. 8-9.

33) 라투르는 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하나하나가 행위자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을 모두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본고는 근대성이 피식민인들에게 가한 폭력과 그 파괴된 문화가 새롭게 접근되어야 함을 주제로 삼고 있기때문에, 분석의 대상을 인간에 한정시킨다는 점을 밝힌다.

34) Bruno Latour (2017), p. 58.

35) “Cependant cela ne réglait pas le problème. Il y avait encore des classifications raciales dans ces brassages. Faites un tour à la Grande Ile. Brassés Africain-Chinois, Africain-Européen, Africain-Mélanésien,

위 인용문을 통해 화자이자 주인공은 근대화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이분법적 세계관을 탈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문화와 인종의 혼합은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랫동안 마치 유일한 문화와 인종을 형성하고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너와 나의 다른 문화를 각자 강조하며, 나의 문화가 너의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방식을 우리는 서구사회의 이분법적이고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통해 익히 경험해 왔다. 이 텍스트의 화자이자 주인공은 지금까지 근대적인 인간들이 구축해 온 시각에서 벗어나길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제는 각자가 자신의 기원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또 자기 자신과 화합하는 동시에 타인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존중하기를 촉구한다.

## V. 나가며

근대화의 화살은 세계화를 향해 끝없이 지평선을 향해 전진하고 영토의 경계를 관통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으며, 식민제국주의는 이러한 영토 확장의 개념을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은 수많은 남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연안 지역,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은 20세기 말까지 서구식 근대화에 목숨을 걸며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를 기점으로

---

Africain-Mélanésien brassé avec Africain-Indien, chacun se disait supérieur à l'autre avec un mépris violent.

Que fallait-il faire?

Rester soi-même, avec l'énergie du désespoir et imposer son identité, peu importait laquelle d'ailleurs, jusqu'à la destruction totale du gène de la bêtise humaine.“: Ken Bugul (1999), p. 97.

심각하게 마주하게 된 지구 온난화 현상과 기후변화는 지금까지의 근대화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미국이 탈퇴했다가 1년 만에 다시 복귀하는 등,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195개국에 달하는 국가들이 채택하여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정도로 기후변화는 이제 인간의 삶에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고는 세네갈 작가 켄 부굴의 『히완 혹은 모랫길』을 통해 기후변화에 있어서 근대화의 희생양이 된 피식민 국가의 환경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브뤼노 라투르의 근대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기대어 세계화로 나아간 근대화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서구 세계가 앞장선 근대화의 결과로 사막화라는 기후 재앙을 먼저 맞이한 세네갈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근대화의 반대편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되는 전근대로서 종교와 세속적 사회가 분리되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 세네갈 특유의 무리디즘이라는 이슬람교 종파와 그 지도자들의 삶을 고찰했다. 그리고 주인공이자 화자가 전하는 스리뉴라 불리는 종교지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와 경계가 그들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기에서 특히 전통적인 일부다처제 문화가 20세기 후반에 어떻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화자는 점차 일부다처제와 일부일처제를 대하는 자신의 변화를 고백한다. 화자이자 주인공 자신이 스리뉴의 스물여덟번째 아내가 되어서 생활하면서 본인이 직접 체험한 일부다처제의 장단점을 제시함으로써, 그녀는 서구 근대성의 시각에서 볼 때 전근대적인 일부다처제와 근대적인 일부일처제가 각각의 문화와 역사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드러내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럼으로써 이 텍스트에서 근대화와 로컬을 대변하는 일부일처제와 일부다처제는 이제 화자이자 주인공이 제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부다처제의 가능성을 펼쳐 보인다. 즉, 이제는 발전과 진보만을 위해 근대화만이 옳은 길이라고 맹신했던 미명에서 벗어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지구의 변화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인종 및 문화차별 문제에 한정시키지 않고, 인간대 인간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기후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지구 생활자terrestre’<sup>36)</sup>로서 인간과 생물체의 관계로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36) 라투르 (2021), 김예령 역 (2021), p. 30.

## 참고문헌

- 양재혁 (2019),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서구 근대성 개념 비판 - 행위자-네트 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41: 109-135.
- 이గా야 (2019), 「아프리카 여성, 식민 시대에서 탈식민 시대로: 켄 부굴Ken Bugul의 『재와 잉겔볼Cendres et Braises』」, 『불어불문학연구』, 120: 163-186.
- 브뤼노 라투르 (2017), 박범순 역 (2021),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신기후체제의 정치』, 서울: 이음.
- \_\_\_\_\_ (2021), 김예령 역 (2021), 『나는 어디에 있는가?: 코로나 사태와 격리가 지구 생활자들에게 주는 교훈』, 서울: 이음.
- 아미타브 고시 (2016), 김홍옥 역 (2021), 『대혼란의 시대: 기후 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의 위기다』, 서울: 에코리브르.
- 클라이브 해밀턴 (2017), 정서진 역 (2018), 『인류세: 거대한 전환 앞에 선 인간과 지구 시스템』, 서울: 이상북스.
- Bate, Jonathan (2000), *The Song of the Earth*, Boston: Picador/Havard University Press.
- Bèye, Cheikhouna (2011), “Les mourides du Sénégal face aux défis des nouvelles technologie, le cas d’Internet”, *Le temps des médias*, 17: 111-117.
- Bourget, Carine et d’Almeida, Irène Assiba (2003), “Entretien avec Ken Bugul”, *The French Review*, 77(2): 352-363.
- Bugul, Ken (1983), *Le Baobab Fou*, Paris: Présence Africaine.
- \_\_\_\_\_ (1994), *Cendres et Braises*, Paris: L’Harmattan.
- \_\_\_\_\_ (1999), *Riwan ou le chemin de sable*, Paris: Présence Africaine.
- Latour, Bruno (1991), *Nous n’avons jamais été modernes*, Paris: Edition La Découverte.
- \_\_\_\_\_ (2017), *Où atterrir?: Comment s’orienter en politique*, Paris: Edition La Découverte.
- Sagarra, Catalina (2006), “Le point de vue intersticiel comme espace de subversion dubitative. Riwan ou le chemin de sable de Ken Bugul”, *Dalhousie French Studies*, 74(75): 215-236.
- Ziethen, Antje (2006), “L’espace sexué dans Riwan ou le chemin de sable de Ken Bugul”,

*Présence Francophone: Revue internationale de langue et de littérature*, 67(1):  
1-13.

**【Abstract】**

New Climate System and Modernity Revisited:

*Riwan ou le chemin de sable* of Ken Bugul

Lee, Ka-Ya

Ken Bugul (1947-) is a female author representing Senegal, who reproduced various aspects of modern Senegalese society through several works. In 1999 among the trilogy of her autobiography, the last work, *Riwan ou le chemin de sable*, was published and received the 'Grand prix littéraire d'Afrique noire'. The narrator, who appears as the main character in this text, represents polygamy established in Senegalese culture and shows the aspect of unlimited polygamy of Islamic religious leaders. The narrator reveals that from a modernized Western perspective, polygamy can be seen as a pre-modern, unconditionally tyrannical system for women, but it is not. It also points out that monogamy experienced by the narrator herself is not a flawless system for humans to pursue. This attitude of the narrator seems to be in contact with the opinion of Bruno Latour, who critiques modernity and discusses the position of 21st-century humans who are at a loss between pre-modern and modern. The narrator also suggests how the Senegalese polygamy culture should move forward. In the end, the narrator's voice urging the acceptance of various races and cultures from each position, expressed in Latour's style, can be said to suggest that we now move toward non-modernity, neither modern nor pre-modern.

[Key Words] Ken Bugul, *Riwan ou le chemin de sable*, Bruno Latour, modern, pre-modern, non-modern, new climate system

논문 투고일: 2022. 09. 22

심사 완료일: 2022. 10. 14

게재 확정일: 2022. 10. 14